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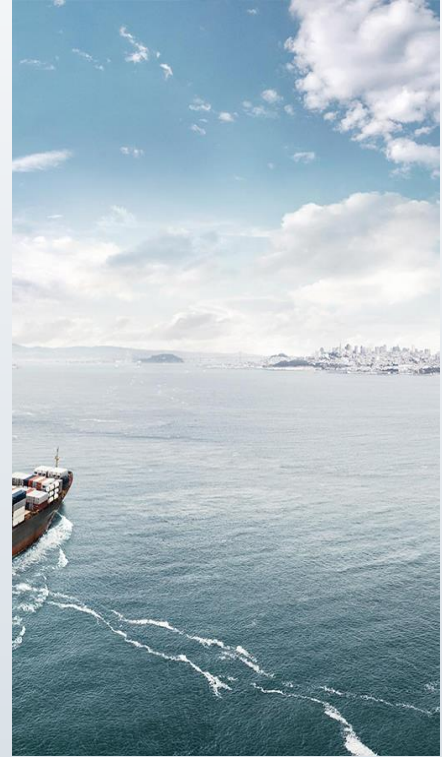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456

June 13, 2023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News	1
Bulk Carrier	6
Tankers	10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Issue & Trend	19
Contact Details	20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NEWS

1. 슈퍼 엘니뇨, 원자재 시장 판도 흔들까...농산물 넘어 구리·리튬 타격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면서 원자재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측된다. 북남미 지역 강수량이 늘면서 세계 3 대 곡물인 옥수수, 대두, 소맥(밀)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설탕, 커피 등 소프트 원자재는 가뭄 위험에 노출되면서 공급 차질이 전망된다.

엘니뇨는 농산물을 넘어 구리, 리튬 등 원자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 주요 구리, 리튬 원산지인 칠레, 페루가 폭우 피해 등에 따른 공급 리스크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 엘니뇨가 다가온다. 미 해양대기청(NOAA)은 이번 여름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80%로 내다봤다. 엘니뇨는 태평양 동쪽(남아메리카 페루·에콰도르 서쪽)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따뜻해지는 현상이다. 반대로 해당 수역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라니냐라고 부른다.

슈퍼 엘니뇨는 이러한 해수면 온도가 2℃ 이상 올라가는 현상으로 세계기상기구(WTO)는 올 6~7 월 발생 가능성을 60%로 전망했다. 지난 100 년간 총 3 차례 발생한 슈퍼 엘니뇨는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도가 잦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슈퍼 엘니뇨는 농산물 시장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측된다. 작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강수량과 가뭄 변수로 작용하는 점 때문이다. 통상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 강수량이 증가하고, 낮아지면 가뭄·산불 발생이 늘어난다.

엘니뇨가 다가오면서 세계 3 대 작물인 옥수수, 대두, 소맥의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작년에 이어 지난달 미 중서부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면서 옥수수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 3 년간 이어진 라니냐로 아르헨티나 등 남미 지역 대두 공급량은 바짝 쪼그라든 상태다.

다만 강수량이 늘면서 이러한 가격 상방요인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NH 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엘니뇨 현상(풍부한 강수량)은 오히려 작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옥수수, 대두 그리고 소맥을 비롯한 3 대 곡물 가격의 상방 시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는 원당, 커피 등 소프트 원자재 공급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가뭄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반대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I . NEWS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곡종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남반구와 아시아가 주요 작황지인 원당과 커피, 코코아 등 소프트 자산은 엘니뇨의 직격탄을 맞으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전문 ETF(상장지수펀드) 운용사 투크리움(TEUCRIUM)의 옥수수, 대두, 소맥, 설탕 펀드는 현지시각 11 일 기준 연초 이후 각 -12.24%, -10.40%, -18.83%, +46.1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슈퍼 엘니뇨는 구리, 리튬 등 타 원자재 시장에도 변동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일반 엘니뇨보다 강력한 강수량 등에 칠레, 페루 등 주요 구리·리튬 산지 내 공급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레와 페루는 세계 1, 2 위 구리 공급국으로 글로벌 구리 공급의 약 40%를 차지한다. 칠레는 2 대 리튬 산지로 전체 공급의 25%가량을 맡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19 년 폭우로 칠레 국영 광산기업 코델코의 당해 1 분기 구리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한 적 있다. 과거 2015 년 엘니뇨 여파로 발생한 이례적 폭우로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칠레 리튬 생산시설이 단기간 폐쇄된 적도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물론 기상이변은 이벤트성인 단기 이슈이나 구조적 공급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중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단발적 공급차질은 가격 상방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엘니뇨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점에서 구리, 리튬 가격의 상방 변수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 골드만삭스, 국제유가 전망치 95 달러서 86 달러로 또 하향 조정

전 세계적으로 석유에 대한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골드만삭스가 올해 국제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80 달러대로 하향 조정했다고 11 일 (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골드만삭스는 12 월 북해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의 배럴당 95 달러에서 86 달러로 낮췄다. 올해 평균 전망치는 기존의 배럴당 88 달러에서 82 달러로, 내년 전망치는 99 달러에서 91 달러로 내렸다.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가 석유 전망에 대해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가졌던 은행 중 하나로 이전에는 배럴당 100 달러의 전망을 유지했지만 지난 6 개월 동안 국제 유가를 세 번이나 하향 조정했다고 전했다.

I . NEWS

최근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 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발표했지만 전망치를 내린 것이다.

사우디의 감산 발표 후 국제 유가는 소폭 오름세를 보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핵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하락했다. 전문가들도 장기적으로 이번 감산으로 인한 상승세가 오랜 기간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 일 북해 브렌트유 선물은 1.17 달러 하락한 배럴당 74.79 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상품 연구 책임자는 "우리의 견해를 바꿀 증거를 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나 전망이 잘못된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유가 전망치를 하향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 국제 제재를 받는 국가의 원유 공급량이 늘어난 점을 들었다. 특히 서방 국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생산 및 공급량이 "거의 완전히 회복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국제 유가를 짓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준금리 상승이 유가상승에 "지속적인 역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편 글로벌 헤지펀드들은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데 베팅을 늘리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에 헤지펀들이 브렌트유와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순매수 포지션을 잡아둔 물량이 6 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오는 13~14 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3. "美연준, 기준금리 인상 잠시 중단할 것"... 터널 끝 보인다

제로(0) 금리에서 출발해 지난해 3 월부터 15 개월 동안 10 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현재 5.00~5.25%인

I . NEWS

기준금리가 올해 최종 금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이달 동결 뒤 7월에 다시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한다.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3~14일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 경제의 회복세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도 15개월 전에 시작된 금리 인상에서 처음으로 휴식을 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연준은 FOMC 회의 뒤 14일 기준금리 인상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이후 지난달까지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기준금리를 10회 연속 인상, 제로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2007년 9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5.00~5.25%로 끌어올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11일 오전 1시 현재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70.1%,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29.9%로 내다봤다. 다만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0~5.25%로 유지할 가능성은 30.1%, 5.25~5.5%일 가능성이 52.8%, 5.5~5.75%가 될 것이란 전망은 17.1%로 나타났다. 이달은 건너뛰더라도 7월엔 1차례 더 금리를 0.25% 정도 인상할 가능성을 시장 참여자들이 열어 놓은 것이다.

통신은 “투자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5.125%(중간값)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분기별 경제전망 요약에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반면 시장에서는 7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뒤 12월에 비슷한 규모의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인상 사이클의 종단을 최종 인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3일 FOMC 직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내에서 이번에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금리 인하 전환에 선을 그었다.

FOMC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에는 미 노동부가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한다. CPI는 FOMC 회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I . NEWS

4 월 CPI 는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 2021 년 4 월(4.2%) 이후 24 개월 만에 최소폭 상승을 기록하며 물가 상승세가 소폭 둔화하는 흐름을 이어갔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1 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블룸버그는 5 월 CPI 가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하고, 근원 CPI 는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신은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 연준이 잠시(기준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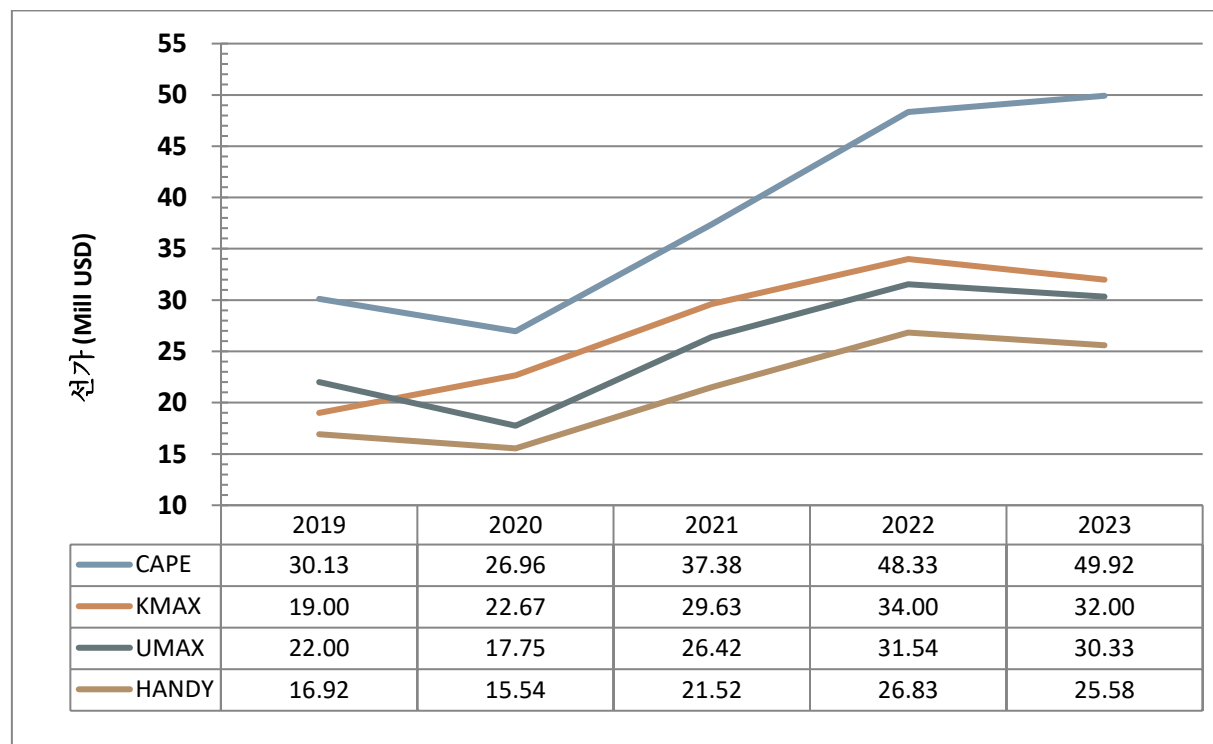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

연평균 선가	2019	2020	2021	2022	2023
Capesize 180K *Eco-design based since 2021	30.13	26.96	37.38	48.33	49.92
	-14.34%	-10.51%	38.64%	--	3.28%
Kamsarmax 82K *76k before 2020	19.00	22.67	29.63	34.00	32.00
	0.42%	19.30%	30.70%	14.75%	-5.88%
Ultramax 60-61K	22.00	17.75	26.42	31.54	30.33
	--	-19.32%	48.83%	19.40%	-3.83%
SMAX 58K *Data available before 2021	17.17	15.92	--	--	
	-4.20%	-7.28%	--	--	
Handysize 37K	16.92	15.54	21.52	26.83	25.58
	12.18%	-8.13%	38.47%	24.69%	-4.66%

□ BC 연평균 선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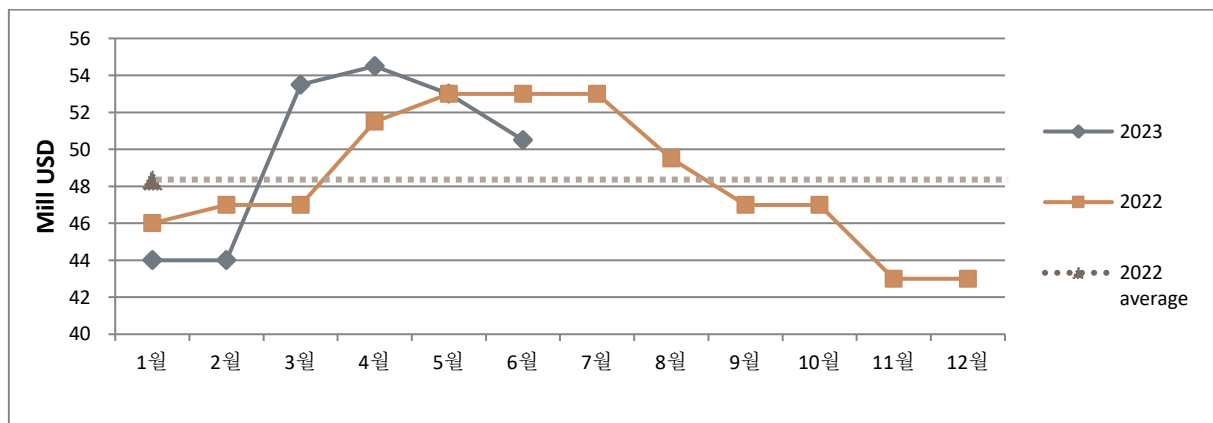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2023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CAPE (180K, Eco.)	선가	44.00	44.00	53.50	54.50	53.00	50.50	49.92
	전월대비	2.3%	0.0%	21.6%	1.9%	-2.8%	-4.7%	--
	전년대비	-4.3%	-6.4%	13.8%	5.8%	0.0%	-4.7%	3.3%
KMAX (82K)	선가	30.00	30.00	32.50	34.00	33.00	32.50	32.00
	전월대비	0.0%	0.0%	8.3%	4.6%	-2.9%	-1.5%	--
	전년대비	-11.8%	-13.0%	-8.5%	-6.8%	-13.2%	-14.5%	-5.9%
UMAX (60-61K)	선가	28.50	28.50	31.50	32.00	31.00	30.50	30.33
	전월대비	1.8%	0.0%	10.5%	1.6%	-3.1%	-1.6%	--
	전년대비	-6.6%	-12.3%	-4.5%	-5.9%	-8.8%	-11.6%	-3.8%
HANDY (37K)	선가	24.50	24.50	26.00	26.50	26.00	26.00	25.58
	전월대비	4.3%	0.0%	6.1%	1.9%	-1.9%	0.0%	--
	전년대비	-10.9%	-12.5%	-7.1%	-7.0%	-8.8%	-8.8%	-4.7%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CAPE (180K, Eco.)	46.00	47.00	47.00	51.50	53.00	53.00	48.33
KMAX (82K)	34.00	34.50	35.50	36.50	38.00	38.00	34.00
SMAX (58K)	30.50	32.50	33.00	34.00	34.00	34.50	31.54
HANDY (37K)	27.50	28.00	28.00	28.50	28.50	28.50	2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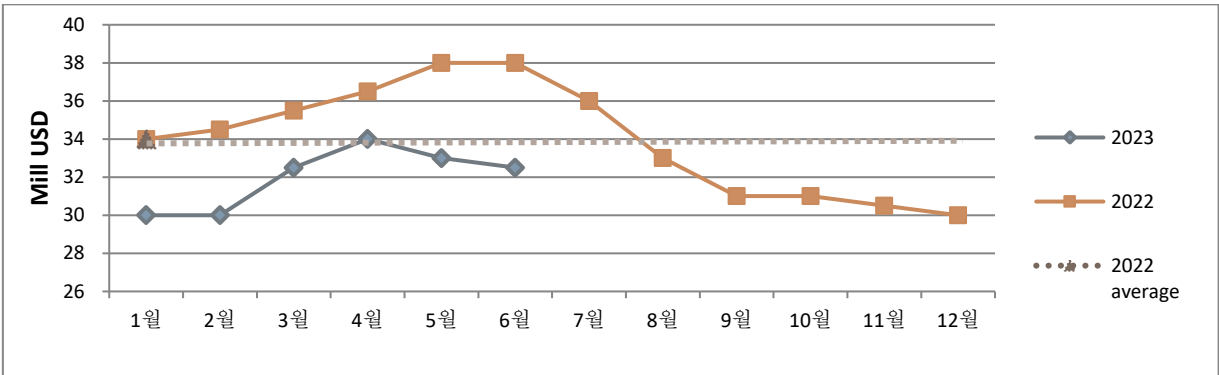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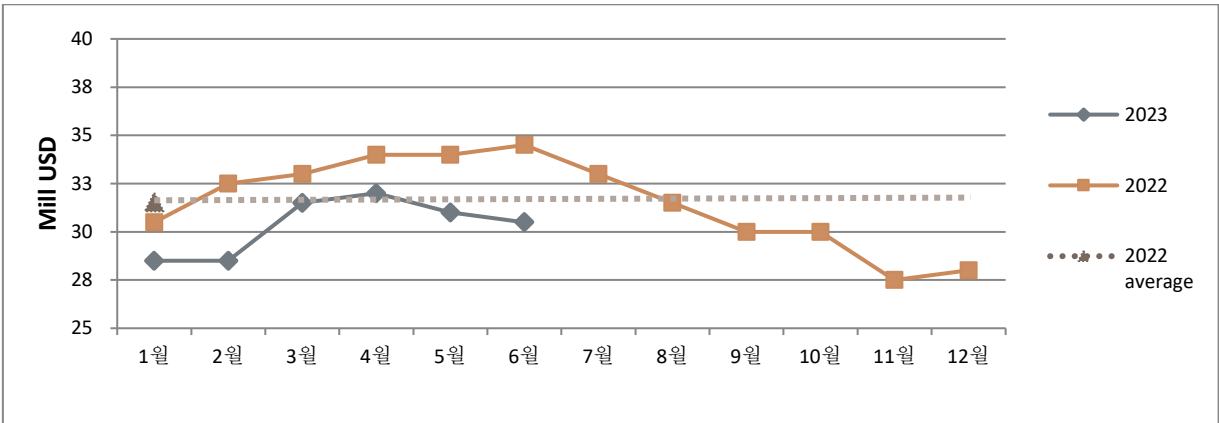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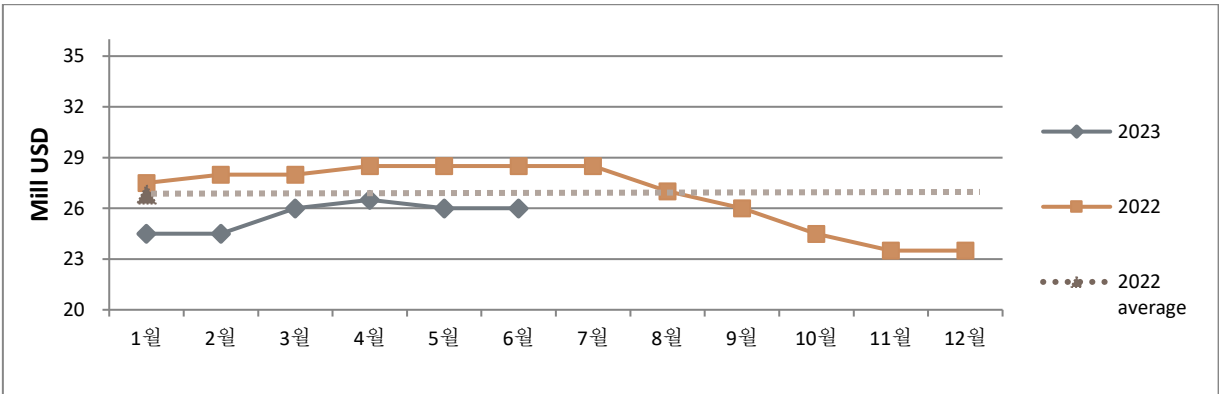
□ Kamsarmax



□ Ultramax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HERUN ZHOUSHAN	181,056	2017	CHINA	B&W		41.5	Greek buyer
BC	SANTA BARBARA	76,361	2011	JAPAN	B&W		17.7	Greek buyer
BC	BELVEDERE	66,637	2015	JAPAN	B&W	C 4x30t	27	Undisclosed buyer
BC	VICTORIA T	61,266	2017	JAPAN	B&W	C 4x30.7t	29.2	Undisclosed buyer
BC	CF DIAMOND	57,700	2016	JAPAN	B&W	C 4x30t	24.2	Greek buyer, eco-engine
BC	ARKADIA	56,348	2012	VIETNAM (KOR)	B&W	C 4x28t	17	Undisclosed buyer, ice class 1A
BC	KUMPULA	56,348	2012	VIETNAM (KOR)	B&W	C 4x28t	17	
BC	STOVE OCEAN	55,681	2013	JAPAN	B&W	C 4x30t	21	Swiss buyer (Gearbulk), box-hold
BC	MAGNUM FORCE	53,630	2008	CHINA	B&W	C 4x30t	12.9	Indonesian buyer
BC	CIELO DI PALERMO	37,059	2013	JAPAN	B&W	C 4x30.5t	18.5	Far Eastern Buyer, OH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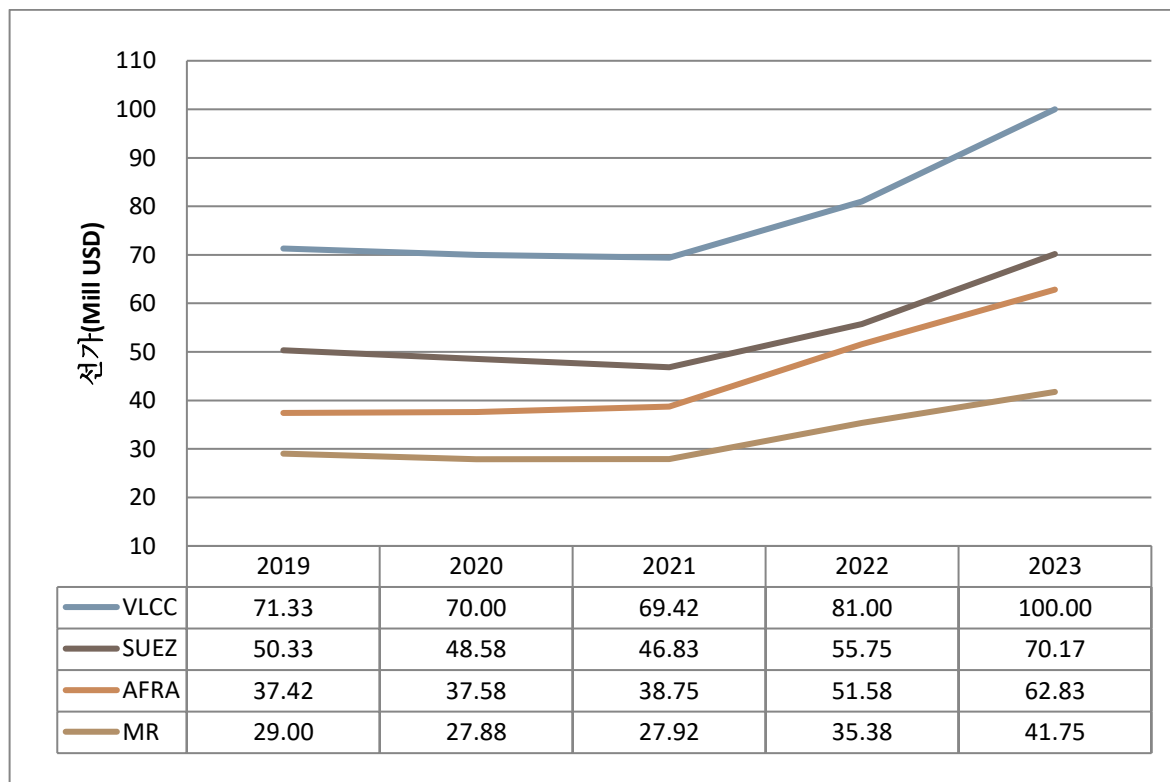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률 : 전년도 대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VLCC (310K)	71.33	70.00	69.42	81.00	100.00
	10.73%	-1.87%	-.83%	16.69%	23.46%
Suezmax (160K)	50.33	48.58	46.83	55.75	70.17
	15.60%	-3.48%	-3.60%	19.04%	25.86%
Aframax (105K)	37.42	37.58	38.75	51.58	62.83
	17.85%	.45%	3.10%	33.12%	21.81%
MR (51K) *Based on 49K till 2018	29.00	27.88	27.92	35.38	41.75
	9.43%	-3.88%	.15%	26.72%	18.02%

□ TANKER 연평균 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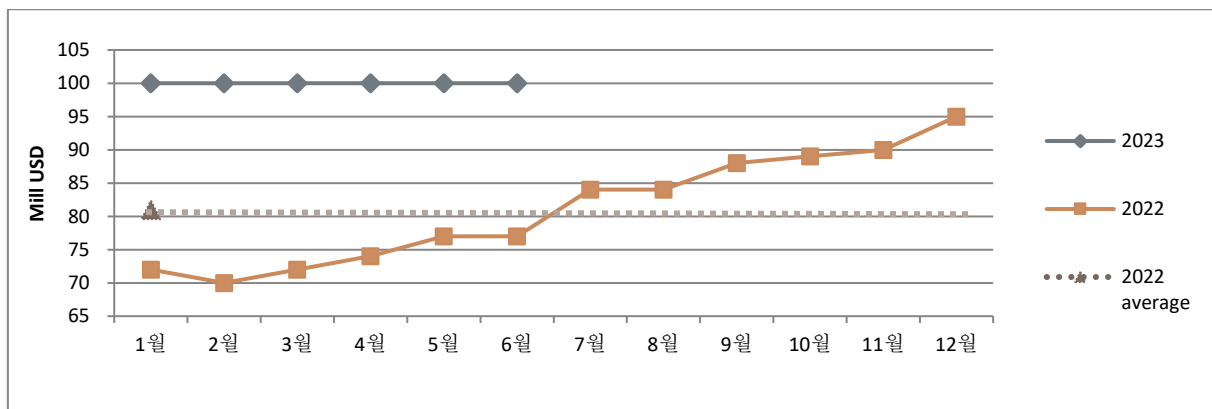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III. TANKER

2023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VLCC 310K	선가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전월대비	5.3%	0.0%	0.0%	0.0%	0.0%	0.0%	-
	전년대비	38.9%	42.9%	38.9%	35.1%	29.9%	29.9%	23.5%
SUEZ 160K	선가	68.00	68.00	68.50	68.50	74.00	74.00	70.17
	전월대비	4.6%	0.0%	0.7%	0.0%	8.0%	0.0%	-
	전년대비	41.7%	44.7%	39.8%	34.3%	42.3%	37.0%	25.9%
AFRA 105K	선가	62.50	62.50	62.50	62.50	63.50	63.50	62.83
	전월대비	4.2%	0.0%	0.0%	0.0%	1.6%	0.0%	-
	전년대비	38.9%	38.9%	38.9%	33.0%	29.6%	29.6%	21.8%
MR 51K	선가	41.50	41.50	41.50	42.00	42.00	42.00	41.75
	전월대비	3.8%	0.0%	0.0%	1.2%	0.0%	0.0%	-
	전년대비	38.3%	38.3%	43.1%	29.2%	25.4%	25.4%	18.0%
2022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1year 평균
VLCC		72.00	70.00	72.00	74.00	77.00	77.00	81.00
SUEZ		48.00	47.00	49.00	51.00	52.00	54.00	55.75
AFRA		45.00	45.00	45.00	47.00	49.00	49.00	51.58
MR		30.00	30.00	29.00	32.50	33.50	33.50	3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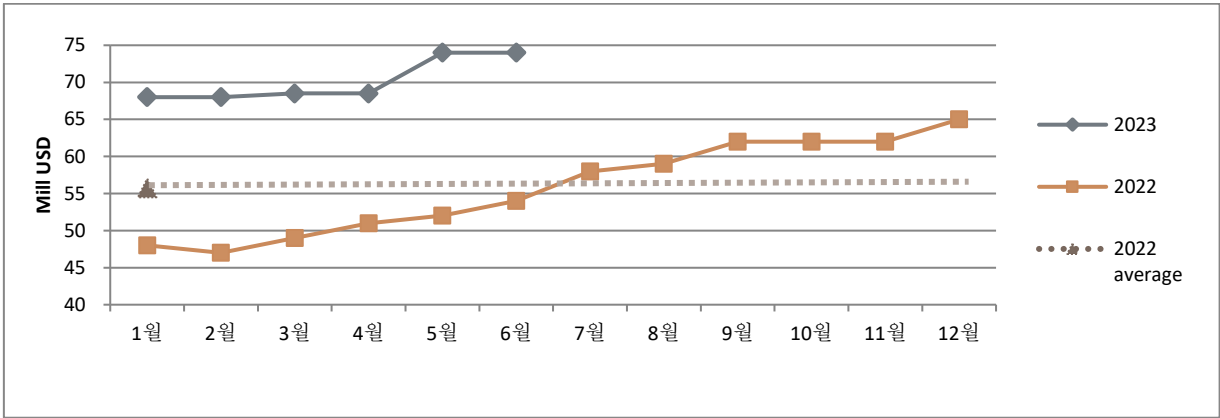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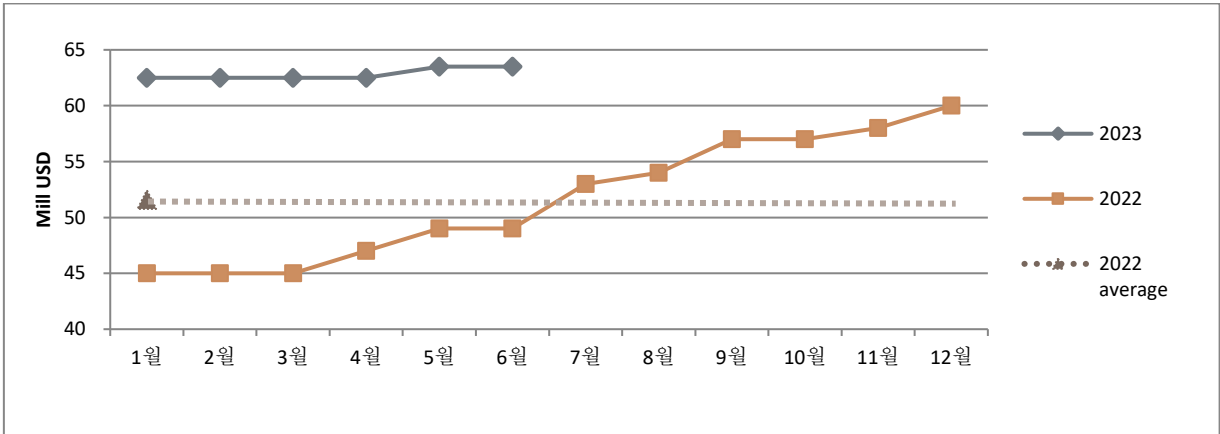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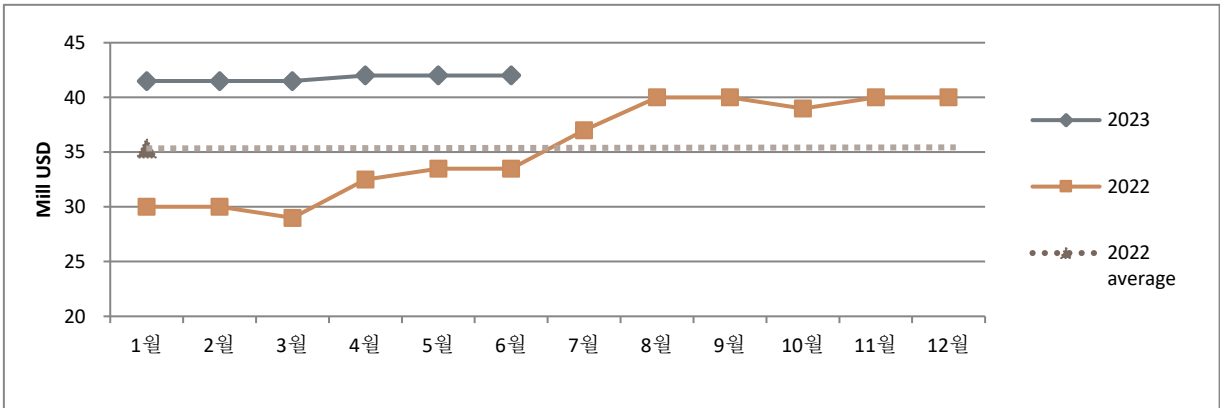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Tank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LAKE STURGEON	74,999	2007	JAPAN	B&W		27	Undisclosed buyer, epoxy coating, CPP
TANKER	MTM POTOMAC	51,319	2004	KOREA	B&W		18	Undisclosed buyer, epoxy coating
OIL/CHEM	EAGLE BAY	47,128	2008	KOREA	B&W	3	24.2	Undisclosed buyer

CONTAINER, REEFER,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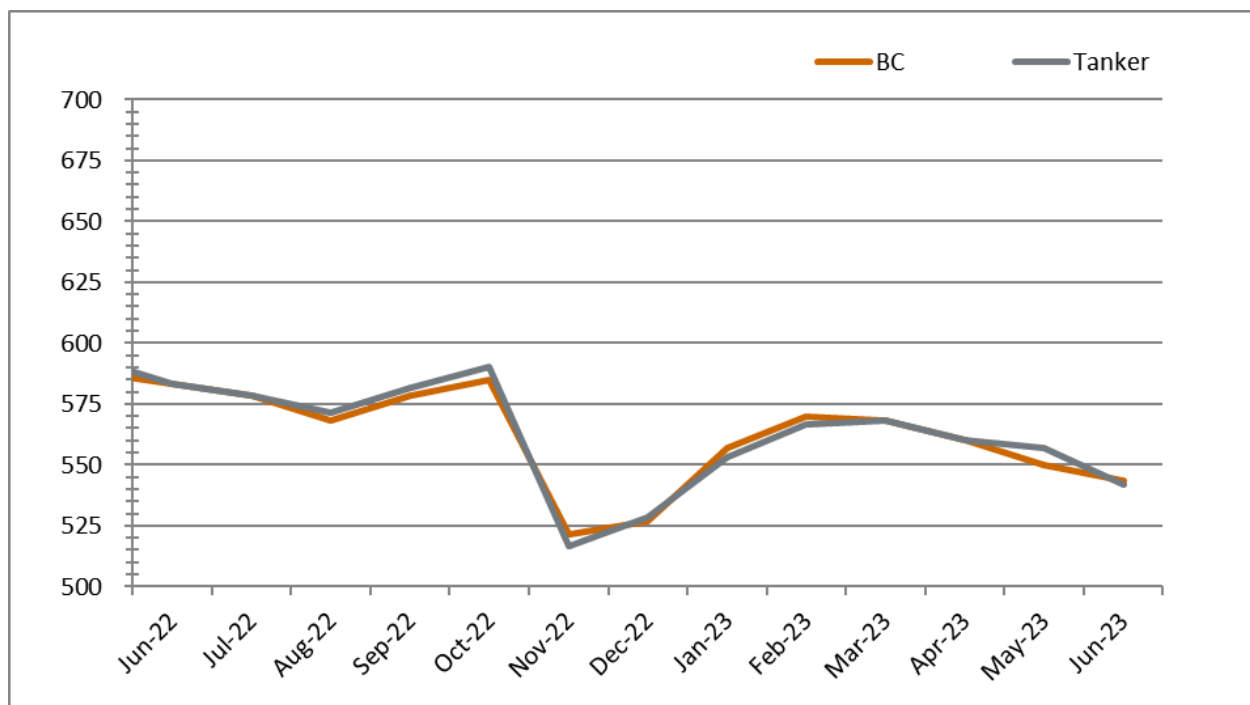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NYK MARIA	34,558	2009	KOREA	B&W	2664	TEU	14.5	Greek buyer
CONT	WAN HAI 281	24,116	1998	JAPAN	B&W	1510	TEU	6.85	Chinese buyer
CONT	DURANDE	23,400	2003	CHINA	B&W	1740	TEU	9	Undisclosed buyer
CONT	WAN HAI 261	22,800	2001	JAPAN	B&W	1728	TEU	7	Chinese buyer
CONT	KYOKUYO 569	11,817	2023	JAPAN	B&W	1096	TEU	26	Japanese Buyer (IMOTO SHOUN)
CONT	A WASHIBA	11,817	2023	JAPAN	B&W	1096	TEU	26	

IV. DEMOLITION

1) 해체선가

	2021 Average		2022 Average		2023 Average		2022 June	2023 June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YoY	USD/LDT	USD/LDT	MoM	YoY
TANKER	526.81	52.9%	590.28	12.0%	557.78	-5.5%	583.33	541.67	-2.7%	-7.1%
BC	529.17	53.6%	588.56	70.8%	558.06	-5.2%	583.33	543.33	-1.2%	-6.9%

❖ 기준 : 인도 해체선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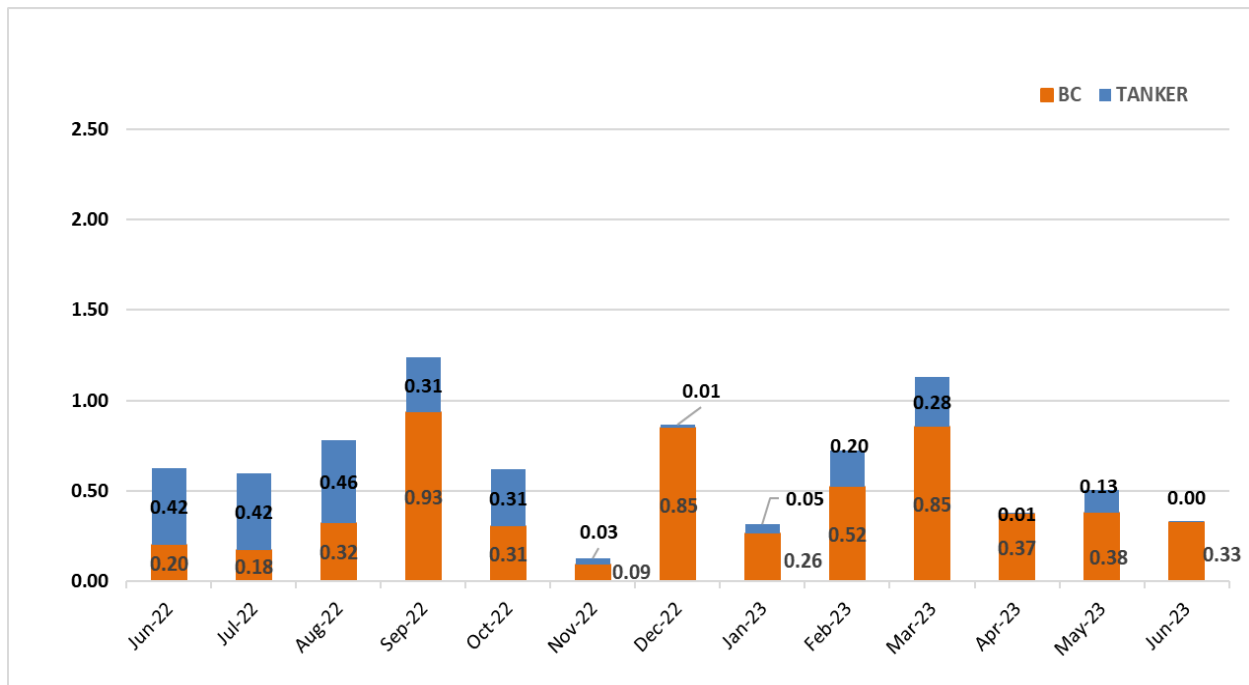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 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21		2022		2022 June		2023 June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No. of Vessel	Million DWT	YoY	No. of Vessel	YoY
TANKER	15.66	315	6.50	134	0.42	10	0.00	-99.7%	1	-90.0%
*BC	6.34	123	4.48	63	0.20	5	0.33	61.3%	6	20.0%

*BC incl. General cargo vessel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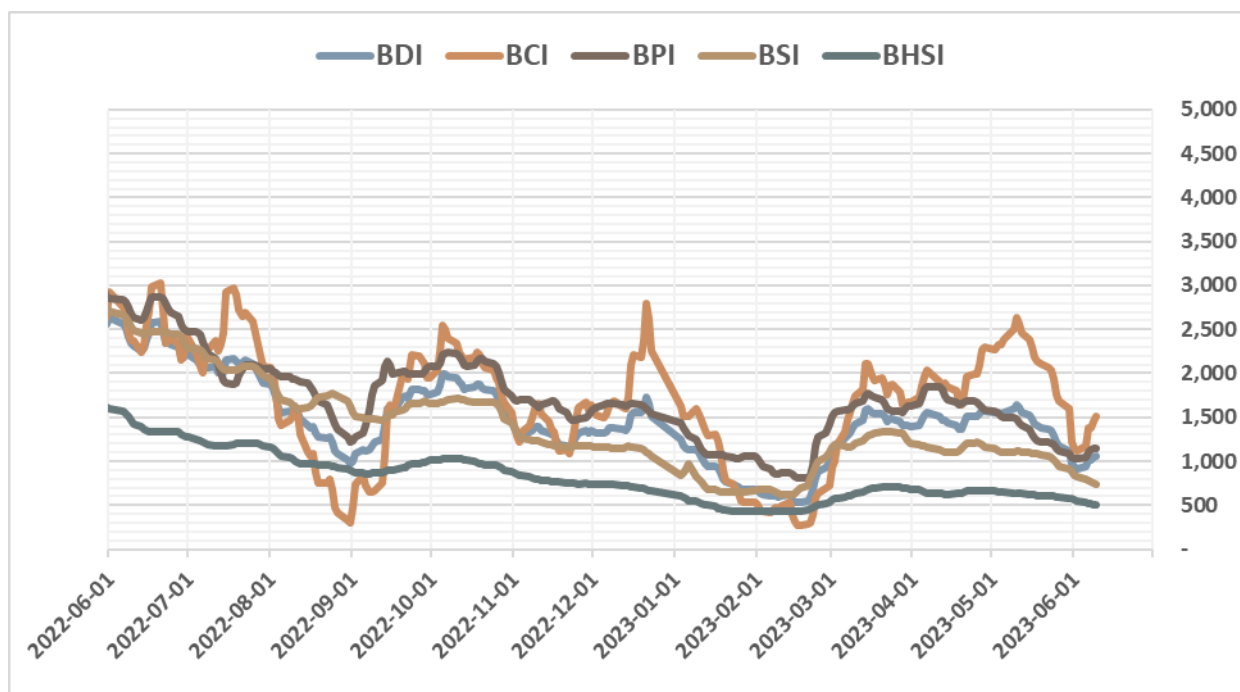
Demolition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BC	JASMINE II	45,269	9,536	1997	CHINA	SULZ	585	BANGLADESHI, incl. 100-120MT ROB
CONT	MSC NICOLE	41,787	13,961	1989	FRANCE	SULZ	521	INDIAN, HKC recycling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3-06-09	2023-06-02	CHANGE	1 Year High	1 Year Low
BDI	1,055	919	▲136.00	3,369	530
BCI	1,514	1,116	▲398.00	4,602	271
BPI	1,146	1,030	▲116.00	3,382	809
BSI	736	819	▼83.00	2,833	625
BHSI	501	545	▼44.00	1,673	431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전주대비증감
VLSFO	585.50	▲24.00	540.00	▲5.50	532.50	▲12.50
MGO	716.00	▲28.00	690.00	▲15.50	714.50	▲5.00
LSMGO	716.00	▲28.00	690.00	▲15.50	-	-
IFO380	442.50	▲8.50	450.00	▲2.00	421.50	▲0.50

❖기준일 : 06 월 09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3-06-09	2023-06-02	CHANGE
미국 USD	1306.10	1320.70	▼14.60
영국 GBP	1640.72	1654.51	▼13.79
유로 EUR	1408.50	1421.54	▼13.04
중국 CNY	182.72	185.58	▼2.86
일본 JPY (100)	940.69	951.75	▼11.06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ISSUE & TREND

[시사 상식] 모나리자 효과

◆ 모나리자 효과는 경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묘한 표정의 초상화 모나리자에 빗댄 말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4 월 팬데믹 이후의 경제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나리자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알려졌다.

연 초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진화에도 경기가 침체하지 않는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가 거론됐지만,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이와 반대로 경기 침체 우려가 급격하게 커진 것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모나리자 효과는 한국 경제에도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1 일 블로그를 통해 한국 경제의 현 위치를 설명하며 모나리자 효과를 인용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대외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높은 금리 수준에도 소비와 고용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에서 체감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 역시 공존한다는 것이다.

물가도 마찬가지다. 경기 둔화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점차 목표 수준(2%)에 근접해 갈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한편, 소비와 고용이 양호한 만큼 근원물가는 한동안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되고 있다.

한은은 이 같은 상반된 평가에 대해 "경제가 동조화되지 않고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

VII. CONTACT DETAILS

STL GLOBAL CO., LTD.			
Marino Hwang(황 재 웅) President T. 070-7771-6400			
Fleet & Chartering Operation biz@stlkorea.com	Sancho Kim(김 현 진) Managing Director T. 070-7771-6404	H.S. Lee(이 현 성) Director T. 070-7771-6412	
	Mike Hong(홍 창 목) Director T. 070-7771-6417	Henry S.H. Oh(오 수 현)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2	
	Anna Lee(이 혜 란) Manager T. 070-7771-6403	Joovi Park(박 주 비)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19	
Agency Operation operation@stlkorea.com	Jennifer Park(박 영 단) Manager T. 070-7771-6407	Hayden Son(손 호 영) Assistant Manager T. 070-7771-6401	
Ferroalloy Logistics & Warehouse Management ops@stlkorea.com	Jena Ahn(안 지 영) Deputy General Manager T. 070-7771-6405	Joanne Jin(진 정 식) Manager T. 070-7771-6406	
STL SHIPPING CO., LTD.			
Sale and Purchase Broking snp@stlkorea.com	Neal S.I. Kwon(권 순 일) President T. 070-7771-6410		
	Jack Kim(김 종 수) Director T. 070-7771-6411	Nova Cha(차 해 정) Team member T. 070-7771-6409	
T. 02-776-0840(Rep.) E. seoul@stlkorea.com W. www.stlkorea.com (04146) 101-13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STL G-TOUR		Jeonnam Yacht Academy	
기업/일반 단체 항공예약 실장 김 영 하	T. 1661-8388 T. 070-4800-0151 W. www.stlgtour.com E. tour@stlgtour.com	보트/요트 면허취득 실장 이 진 행 대리 이 정 택	T. 061-247-0331 T. 010-2777-4027 W. www.stlyacht.com E. academy@stlyacht.com